경찰 인사비리 지역 업체로 '불똥'

검찰, 광주 축산업체 전격 압수수색

계좌추적 확대…'뇌관' 터지나 긴장

검찰이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광주지역 유명 축산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현직 경찰 간부 이외에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지역내 일부 업체로까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이 같은 흐름은 또 다른 경찰 고위 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전남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지역 업체로 확대=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광주 S축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S축산의 지난 5년간의 회계장부와 통장 등을 압수해 갔으며, 업체 대표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부 수표의 출처가 S축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입금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S축산은 현직 경찰 고위간부 A씨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축산이 사건 해결이나 경찰관의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간부 A씨를 통해 최 전 차장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경 안팎에선 이에 따라 검찰이 최 전 차장의 뇌물 수뢰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확대할 경우 S축산 이외에도 또 다른 지역 업체들로 '불똥'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축산 이외에도 광주지역 몇몇 업체 대표가 그동안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모 건설업체의 경우 '법조 브로커' 윤상림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인사비리 '뇌관' 터지나=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번 S축산 압수수색이 최 전 차장 이외에 또 다른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전남경찰청 '인사비리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계급별 승진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경위 승진은 1천만원~2천만원, 경감은 2천만원~3천만원, 경정은 4천만원~5천만원, 총경은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조직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사회 인사가 이처럼 관행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인사비리에 경종을 울려, 능력보다 줄대기나 돈이 중시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어천재' 박새벽·성준 형제

인하대서 '러브콜'

'천재소년' 송유근(9)군을 대학생으로 전격 입학시켰던 인하대가 토익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받고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는 '영어천재' 박새벽(16)·성준(13)형제〈본보 13일자 1면〉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인하대 박제남 입학처장은 13일 "박새벽·성준 형제의 영재성과 개성을 높이 평가해 두 형제 모두를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형 새벽군의 경우 지난해 8월 광주과학고를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만큼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할 경우 내년 입시에서 처음 도입·시행하는 홈 스쿨링 전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 스쿨링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해 부모가 자녀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인하대는 오는 7월과 9월에 치르는 수시모집에서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새벽군의 경우 정부가 국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내 물류학과에 입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와 함께 성준군의 경우 형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하대 영재교육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13일 새벽군의 아버지인 박재규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4월말께 광주에서 직접 만나 장학지원 등 구체적인 입학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종이 선박' 면세유 착복

목포해경, 선박 증명서 위조 6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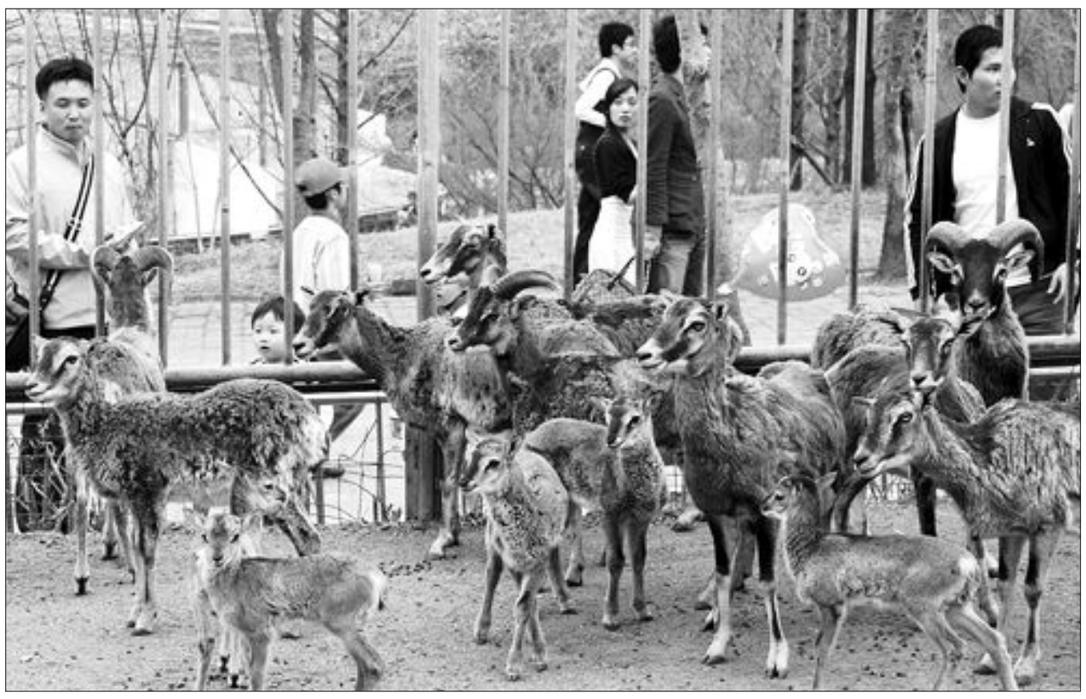
목포해양경찰은 13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선박'을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사기)로 문모(57·신안군 압해면)씨를 구속하고, 박모(영광군 낙월면)씨 등 2명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어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선체는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1톤급 어선(선외기) 2척의 선박 증명서를 만들어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휘발유 1만1천575ℓ 를 공급 받아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는 등 63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선주 박모(48)씨 형제도 선박증명서를 위조해 면세유를 공급받아 오다 적발됐다.

해경은 도내 2t 미만 선박 중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은 10% 정도에 불과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새끼 산양 "무럭무럭 자라라"

지난달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무플론(Mouflon sheep) 6마리(수컷 2, 암컷 4)가 13일 오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지중해의 콜사카나르지니어 섬이 원산지인 '무풀론'은 소목 소과의 야생 산양으로 체구는 야생양 중에 가장 작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무플론은 몸길이 30㎝, 어깨높이 20㎝, 몸무게는 1kg 정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용산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유족들 "항소하겠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며김씨에게 사형을, 아들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었다.

희생자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2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모(11)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골프채 전문 털이범 검거

15차례 3,200여만원 어치

광주 북부경찰은 13일 4개월여 동안 골프연습장과 승용차 트렁크 등에서 골프채를 전문적으로 훔쳐온 김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절도)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M골프연습장 래커룸에 있는 골프채 1세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채 1세트를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3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신안 해역서 리히터 2.8 지진

13일 새벽 1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서쪽 52㎞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승배기자 lsb54@

'두발제한 폐지' 문자로 사이트 마비

쌍나팔

○…'100만 명이 서명하면 두발제한이 폐지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국의 중고교생들에게 퍼져나간 후 해당 포털사이트가 방문자 폭주로 3일째 마비.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 두 넷'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는 받은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또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어져 방과 후인 오후 4시가 넘으면 동시 접속 가능(최대 500명)의 200배인 1만 여명이 이 사이트에 몰려든다고.

○…사이트 관계자는 "학교에 건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분별해 보인다"며 "이번 일로 날마다 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일기를 쓰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자제를 호소.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